



거룩한 선지자 무함마드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전 인류를 위한 사도

선지자 무함마드는 누구인가?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거룩한 선지자 무함마드는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이슬람의 창시적 선지자이며 하나님이 최종 신앙을 계시한 장본인이다. 그는 서기 570년 아라비아 메카(Makkah)의 명문

가에서 태어났으며, 선지자 아브라함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후손이었다. '무함마드'란 단어는 문자 그대로 '찬양할 만한'을 의미한다.

선지자 이전의 삶

그의 아버지, 압둘라는 그의 출생 몇 개월 전에 사망했으며, 그의 어머니, 아미나는 그가 불과 6 살 때 사망했다.

그 후 그의 조부 압둘 무탈립의 부양을 받게 되지만, 그의 조부도 2 년 후 사망하고 만다.

무함마드는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그 후 그의 삼촌 아부 탈리브의 슬하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는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정직하고, 품위 있으며, 진실하고 총명하게 성장했다.

그는 또한 삼촌의 무역 일을 도왔으며, 때로는 삼촌을 따라 다른 나라를 여행하기도 했다.

무함마드는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경건하고 소박한 생활을 했으며, 꺼리지 않고 남을 돕기로 유명했다.

그의 이러한 행위로 그는 아스 시디크 (As-Siddique,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뜻) 및 알 아민 (Al-Amin, 가장 진실된 이라는 뜻) 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무함마드가 스물 다섯 살이 되던 해, 그는 15세 연상의 하디자라는 이름의 존경할 만한 과부와 결혼한다.

그녀는 그의 고귀한 인품에 감명 받은 나머지 자신의 부와 노예를 그의 처분에 맡겼고, 가복들은 해방되었다.

이 거룩한 선지자는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나누어 주었다.



메카 근교의 히라 동굴, 거룩한 선지자 무함마드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자주 명상에 빠져 들던 장소이며, 그가 처음 꾸란의 계시를 받은 곳.

*pbuh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계시

무함마드는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하나님을 추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 는 아랍어로 유일신을 뜻함).

종종 그는 메카에서 몇 마일 떨어진 히라라는 동굴에서 명상을 했다.

그가 마흔 살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첫 번째 꾸란의 계시를 그에게 전달하는 환영을 보게 된다.

“읽어라! 창조주이신 너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께서는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읽어라! 너의 주님은 가장 은혜로운 분으로 연필로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며,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노라.”
(성 꾸란 96장 2-6절)

무함마드는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그 환영을 접하고 너무나도 큰 위압감에 사로잡혀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와 그의 부인 하디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해주었고, 그녀는 그를 기독교 은자인 그녀의 사촌 와라카 빈 나우펠(Waraqah bin Naufal)에게 데려 갔다.

그에게 일어난 일을 들은 와라카는

'당신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전에 모세에게 나타난 그 천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에 대한 예언인 신명기 18장 18절을 언급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로서의 무함마드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구절은 무함마드에게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계시된 성 꾸란의 첫 구절이다.

이후 이 십 삼 년 동안 성 꾸란 전체가 그에게 계시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내용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고 전해진다.

그의 사명

선지자 무함마드는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하나님의 단일성을 전파했다.

그는 모든 신성한 종교는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한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하며,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류 모두에 대한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무함마드는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가난한 자를 돕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약한 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했으며, 여성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확립

히 자리잡도록 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 중에 인내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다.

그의 임무는 세계에 악과 죄악을 근절하고, 선과 경건이 확실히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가 꾸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자비'로 언급되는 이유이다.

고난과 성공

메카의 이교도들은 무함마드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말을 듣지 않았고, 온갖 방법으로 그에게 맞섰다.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절대 반격하는 일 없이 확고한 의지와 훌륭한 인내심으로 이를 견뎌내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모욕을 받았고, 무슬림이 된 노예들은 특히 심한 처우를 받았다. 메카인의 손에 박해를 받은 지 십삼 년 후, 무함마드는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메카 북쪽으로 거의 260마일 떨어진 메디나(Madinah)로 이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메카인은 그 곳에서 조차 그가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상대로 수 많은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했다.

무함마드는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방어를 위해서만 싸웠고, 승리했을 때는 자비와 용서로 그의 원수를 대했다.

마침내 메카인이 무함마드에게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굴복했을 때, 이는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무함마드는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그의 적에게 매우 관대하고 도량 있게 대했다.

무함마드는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슬람의 보호 아래서 그들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다.

육십삼년이라는 일생을 사는 동안 이 거룩한 선지자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삶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으며, 가난으로부터 부유함으로, 실패로부터 성공으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고독한 목소리에서부터 의심할 여지 없는 권능으로, 박해로부터 당당한 권위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고아의 운명을 감수했고, 다정한 양자였고, 정직한 상인이었으며, 사랑하는 남편, 친절한 아버지, 돌보는 이웃, 뛰어난 장군, 공정한 재판관이며 입법자였으며, 계몽 정치가이며 충실한 친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며 설교자였다.

이 거룩한 선지자는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서기 632년에 사망했으나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신자들의 사회를 뒤에 남겼으며, 이들은 엄청난게 힘든 일 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곳에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한 자신들의 사명을 이어갔다.

오늘날 세계에는 십 억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있다.



알 마스지드 알 나바위(Al-Masjid al-Nabwi) '예언자의 모스크'는 메디나 시에 위치하고 있다. (표지 사진 및 위 사진)
그 구내에는 거룩한 예언자의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마지막 휴식 장소도 있다.
이 모스크는 이슬람교에서 두 번째로 신성한 장소로 간주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 중 하나이다.

거룩한 선지자의 말씀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평등

만인은 평등하느니라.

너희가 속하는 국가나 부족에 상관없이, 지닌 신분에 상관없이 만인은 평등하느니라.

어느 누구도 다른 이에 대해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느니라.

아랍인이 비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며 비 아랍인이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느니라.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며, 흑인이 백인보다 우월하지도 않느니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범위에서 우월함을 결정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 가운데 가장 고결한 이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니라.

(거룩한 선지자(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의 고별 설교)

사랑

사랑은 태양이 떠오르는 매일 매일, 만인의 목숨에 의무로 지워지는 것이니라.

경쟁자들 간에 화해를 얻어내는 것이 사랑이니라.

사람이 자신의 동물을 타거나 그의 짐을 싣는 것을 돕는 것이 사랑이니라.

좋은 말이 사랑이니라.

살라트(예배)를 위한 모스크를 향한 모든 걸음이 사랑이니라.

길에서 불편을 주는 어떠한 것이라도 제거하는 것이 사랑이니라.

(부카리와 무슬림)

지식을 추구하라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남녀 무슬림들의 의무이니라.

(이븐 마자)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심판의 날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이웃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느니라.

(부카리)

충성심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믿음의 일부이니라.

(사크하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을 좋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한 아무도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없느니라.

(부카리)

정직

너를 의심케 만드는 것은 상관하지 말고 의심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고수하라. 왜냐하면 진리는 위안을 주고 거짓은 불안을 주기 때문이니라.

(티르미지)

아이들을 존중하라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에게 최고의 예절을 함양시키라.

(이븐 마자)

감사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느니라.

(티르미지)

용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해진 난폭함을 용서하고 그 죄인을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 자에게 명예를 수여하고 지위를 승격시키시니라.

(무스나드 아흐마드)

충성심

자유

평등

존중

자유



[www.Love ForAllHatred ForNone.org](http://www.LoveForAllHatredForNone.org)

대한민국 아마디아 무슬림 커뮤니티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덕동 63-2번지 2층

전화 & 팩스: +82-53-294-2234

www.alislam.org • www.mta.tv

Email: info.ahmadiyya.korea@gmail.com